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국제협력 사업 현황 진단 및 추진 방안 모색>

2025. 9



< 목 차 >

I. 출장 개요	1
1. 출장 배경 및 목적	1
2. 출장 기간	1
3. 대상국가 및 방문지	1
4. 출장자 인적 사항	1
5. 출장 주요 일정	2
II. 출장 주요내용	2
1. 나미비아 산업광업에너지부	2
2. 나미비아 과학기술대학	3
3. 나미비아 외교통상부	3
4. 나미비아 그린수소프로그램	4
5. 나미비아 농수산업수자원토지개혁부	4
6. UN나미비아사무소	5
III. 목적 달성 및 시사점	5
1. 출장결과 달성된 목적 사항	5
2. 출장결과 도출된 주요 시사점	5

1. 출장 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국제협력 사업 현황 진단 및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해 현지 실사 및 관계자 면담 수행
- 나미비아와 제주가 협력 중인 3대 분야(농업, 에너지, 건설)에 대한 정책 방향과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협력 대상 지역 및 민간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
- 우선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를 도출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실행 기반을 조성

2. 출장 기간

- 2025. 9. 15.(월) ~ 2025. 9. 19.(금), 3박 5일

3. 대상 국가 및 방문지

- 나미비아 빈트후크 산업광물에너지부, 외교통상부, 농업개발부
- 방문기관: 나미비아 산업광물에너지부(MIME), 과학기술대학(NUST), 외교통상부(MIRT), 그린수소프로그램(NGH2P), 농업수자원토지개혁부(MAWLR), UN나미비아사무소

4. 출장자 인적 사항

연번	성명	소속	직위
1	정재욱	서강대학교	교수

5. 출장 주요 일정

날짜	이동 및 방문기관	주요 내용
9.15(월)	공항 이동 및 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6 00:35-06:20 에티오피아항공 ET673편(인천-아디스아바바) 9.16 08:35-13:20 에티오피아항공 ET835편(아디스아바바-빈트후크)
9.16(화)	현지 도착 산업광물에너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광물에너지부(MIME) 방문 및 관계자 면담
9.17(수)	나미비아과학기술대학 외교통상부 나미비아그린수소프로그램 농수산수자원토지개혁부 UN나미비아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미비아 과학기술대학(NUST)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외교통상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나미비아그린수소프로그램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농수산수자원토지개혁부(MAFWLR) 방문 및 관계자 면담 UN나미비아사무소 관계자 면담
9.18(목)	공항 이동 및 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8 14:30-21:20 에티오피아항공 ET834편(빈트후크-아디스아바바) 9.18 22:35- 9.19 16:00 에티오피아항공 ET672편(아디스아바바-인천)
9.19(금)	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00 인천 공항 도착

II

출장 주요 내용

1. 나미비아 산업광업에너지부(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 MIME는 나미비아의 산업개발, 광물자원 개발, 에너지를 관할하는 부처로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주요 협력 의제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
 - Moses Pakote 행정차관(Executive Director and Accounting Office)를 면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간 에너지 협력에 대한 부처의 평가, 현재 계획 및 진행 중인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해 청취
 - MIME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획운영위원회(NPC: National Planning Commission)와 함께 나미비아의 국가 그린수소정책 및 프로젝트 수행을 총괄하는 그린수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국무회의에서 NPC의 그린수소 계획 전반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결정
- 최근에는 그린 수소 생산 및 수출, 활용 사업에 해외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주의 그린수소 생태계를 나미비아에서 확장(scale-up)하는 협력을 희망

- 정부의 그린 수소 정책은 크게 투자사업과 시범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사업으로는 영국계 투자회사인 Nicholas Holdings와 독일계 재생에너지 기업인 ENERTRAG SE의 합작으로 설립된 Hyphen Hydrogen Energy사의 프로젝트가, 시범사업으로는 독일과 나미비아가 합작한 그린철(탄소중립 철) 생산 프로젝트인 HyIron 등이 있음.
- Hyphen은 의 수소 수출 계획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수소 활용 능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고 시범사업도 그린철, 그린암모니아를 소규모로 생산하여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그린수소 전 주기 생태계 구축 경험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임.

2. 나미비아 과학기술대학(Namibi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NUST는 '23년 10월, 제주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고 농업, 에너지를 비롯한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함.
- Klemens D. /Awarab 부총장 특별 자문 교수, Andreas Iyambo Elombo 나미비아에너지연구소장, Director, Samuel John 기계산업전기공학부(DMME) 교수를 면담하고 그간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협력에 대한 NUST의 평가, 대학의 에너지 관련 연구 개발 및 시범 사업 계획에 대해 청취
- 학생 및 연구자 교류 사업은 물론 기체결 MOU를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협력 사업의 시범사업을 NUST를 기점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
- 예를 들어 NUST의 루테리츠(Lüderitz) 산학협력캠퍼스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제주의 그린수소 생태계를 이식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

3. 나미비아 외교통상부(Minist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rade)

- MIRT는 '25년 새 내각 출범을 계기로 통상 업무까지 관할하게 됨
- Rodney Sinvula Sikopo 북아프리카중동국 차장 겸 아시아국장 대행, Xungileni Kathindi 장관보좌관을 면담하고 그간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협력에 대한 부처의 평가와 향후 협력 사업 방향에 대해 청취
- 한국과 나미비아 모두 현지 공관이 겸임체제로 운영되어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을 표현
- 곧 나미비아 주일대사가 부임할 예정인데 한국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은 인사가 유력하며 여러 계기로 양국의 중앙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간 고위급 및 최고위급 상호방문을 비롯하여 공식적인 협력 채널이 강화되기를 희망

4. 나미비아 그린수소프로그램(Namibia Green Hydrogen Program Office)

- 나미비아의 국가 차원의 그린수소 사업 계획, 개발 및 실행, 모니터링 등 프로젝트 전 주기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그린 수소 위원회의 핵심역할을 담당
 - David Nghimwenavali 수석보좌관(Executive Assistant to the Head Programme)의 다수의 관계자를 면담하고 제주도나 한국 기업이 나미비아 그린수소 발전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청취
 - 나미비아가 최근 기후투자기금(CIF)의 산업 탈탄소 투자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억 5천만 달러의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확보하였는데 초기 아이디어, 시범사업, 대규모 산업 투자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공공, 민간, PPP 등 다양한 형태 사업 또한 지원이 가능
 - 웰비스베이 근처 부지에 나미비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산업단지 내 전력 및 물류 시스템 구축에 제주도의 경험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CIF 재원을 활용하여 제주도의 그린수소 생태계를 나미비아에 도입하는 시범사업 수행이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협력 사업에 CIF 프로그램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 논의 및 수행 등을 위해 제주 측의 관계 기관과 NGH2P 간의 공식적인 협력 플랫폼 구성에 대해 논의를 희망

5. 나미비아 농수산업수자원토지개혁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Water and Land Reform)

- 농수산자원 및 수자원 전반을 관할하는 부처로 지난 7월에 발표된 제6차 국가개발계획(NDP6, 2025-2030)에서 농업 개발, 식량 자립,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중점분야로 선정되며 내각 내 위상이 강화
 - Ben Haraseb 농업생산 및 농업기술 담당국장(Director for Agriculture Production, Extension and Engineering Services)을 면담하고 그간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협력에 대한 부처의 평가와 향후 협력 사업 방향에 대해 청취
 - 제주도의 씨감자 시범재배사업이 민간(제주도내 농업법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양측의 지속적인 지원 및 후속사업 모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감자 자체는 나미비아의 최대 수입 작물로 정부의 농업 개발 및 식량 자립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관련 공공기관 간 후속 협력을 희망

6. UN나미비아사무소

- UN산하 FAO, UNDP, WHO, WFP 등의 많은 전문기구가 빈트후크의 UN House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공동 운영하며 나미비아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 지원과 국가개발계획을 지원
 - Welda Mouton 전 UN나미비아사무소 공공정보전문가를 면담하고 국제기구의 나미비아 국가개발계획 및 정부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청취
 - 미국의 원조 예산 감축으로 사무소 전체 역량에 큰 타격이 있으나 나미비아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정치나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새 내각의 정책 의지가 매우 강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 나미비아의 경제 및 사회 전반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의존하는 구조이다보니 남아프리카 지역 다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외교 전략을 견지

III 목적 달성 및 시사점

1. 출장결과 달성된 목적 사항 등

-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국제협력 사업 현황 진단 및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해 나미비아 정부의 주요 관계자를 면담하여 나미비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
 - 나미비아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협력 의지는 확인하였으나 그간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간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아 협력 사업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
 - 농업, 에너지 부문의 경우 협력 수요와 의지가 확인되나 건설 등 일부 협력 의제의 경우 이런 이유로 인해 추진 동력을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 도출 및 실행기반 조성을 위한 후속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후속 연구 및 논의가 필요
 - 나미비아 정부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양측의 협력 수요와 역량,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2. 출장결과 도출된 중요한 시사점 등

-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국제협력 수요에 기반한 사업 발굴 및 실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전담 조직 구성 및 역량 배치 필요
 - 나미비아 정부 정책 의지나 역량, 협력 환경 등이 남아프리카 주요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그간 협력 사업이 단발성으로 진행되어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

- 그간 협력 사업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협력 관련 기반 및 역량, 경험 등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확인되었으므로 후속 사업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특히 현지 공관이 부재하여 한-나미비아 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지원이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단기 및 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
- 나미비아 정부의 높은 협력 의지는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 도출이나 협력 사업 실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지원을 위한 후속 조사 및 연구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간될 최종 보고서(미래기획 전략과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